

사역과 간증

간증1: 전도자 미라와 뮤랏

우리는 미라와 뮤랏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주로 중앙아시아 내에서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 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중대한 일이고 그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줍니다. 저희가 가족들을 떠나 전도여행을 갈 때,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는 가족들은 저희를 진한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료란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잔인한 부모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동화 속 이야기들보다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른 나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간증2: 복음 전도자

여러분의 도움(기도와 후원)으로 중앙아시아 교회들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이 교회들은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를 통한 복음전파는 교회에 생명력을 주고 승리할 수 있게 하며 고통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전도자를 도와주십시오. \$300의 나눔으로 그는 복음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전도자는 마을에 전도여행을 갈 때 닭 한 마리를 사서 갑니다. 그리곤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나에게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것을 저녁으로 함께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 집이 어떻겠나요?”

사람들은 항상 이 초대에 응하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불러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두에게 간증을 나

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닭 한 마리 사역은 중앙아시아에서 아직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간증3: 복음전도자들의 어려움



때때로 중앙아시아의 복음전도자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닥칩니다. 아미르(Amir)와 바히드(Vahid)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되었고 조작된 혐의와 터무니 없는 조서가 꾸며져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물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술에 취해 공공장소를 시끄럽게 했고 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심지어 판사는 감옥형을 선고하면서 얼마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미르와 바히드가 투옥될 때, 간수로부터 살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옥된 상황은 또 다른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좁은 감방과 극도로 뜨거운 감방의 열기는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이 지나도록 아미르와 바히드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틀째 오후에 바히드의 아내 아시아(Asiyah)가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구속된 후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보여주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성경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처음에 아미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감옥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아시아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0일 동안” 환란을 받은 후에 자신들

이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담대히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14명의 죄수들에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 가운데 네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감된 10일의 기간이 지나자 아미르와 바히드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중앙 아시아에서 문서와 기타 방법으로 복음전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증4: 현지 교회 목회자들의 증언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수의 교회들은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비밀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을 주셨고 복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전파되게 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세 명의 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하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습니까?

- 아크메드(Akhmed, 47 세) 목사

“우리 생명에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협을 감수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의 생명을 위해 숨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크메드 목사님은 복음전파를 중앙아시아 지하교회의 생명적 요소로 이해합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세웠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 마크무드(Makhmud, 35 세) 목사

“복음전도는 교회에 주어진 본래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하교회의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찾습니다.” 마크무드 목사님은 최근에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크무드 목사님처럼 이러한 활동에 연루될 경우 목사들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자말(Jamal, 41 세) 목사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하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비밀스럽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양떼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

회에 대한 박해는 복음전도자로 하여금 침묵하게 합니다. 당국은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성장하고 퍼져갑니다.” 자말 목사님은 지역 지하성도들에게 복음전도 훈련으로 잘 알려진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비밀스럽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대위임령”의 완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아시아의 지하교회들은 복음전파를 교회의 사명으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대와 박해 속에서도 이 지역에 퍼져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앞서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